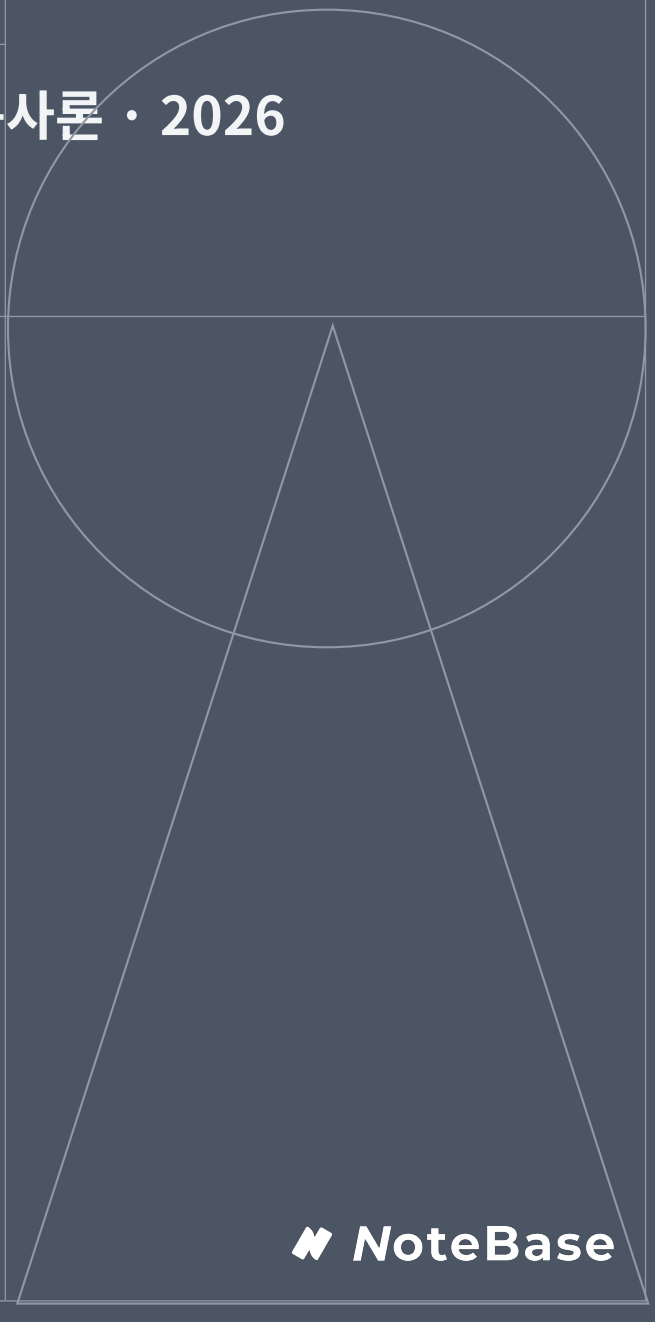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6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6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소셜 태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태깅 과정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태그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셜 태깅의 부산물이다.
> - 보통 태그 구름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은 태그 빈도에 기초하여 태깅사이트에서 생성된 일종의 시각적 태그집합체이다.

① 택소노미　② 폭소노미
③ 메타데이터　④ 온톨로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부여한 태그가 모여 형성되는 폭소노미를 택소노미·메타데이터·온톨로지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폭소노미: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태그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협력적·비형식적 분류 체계이다. 태그 빈도에 따라 글자 크기 등을 달리해 시각화한 태그 클라우드로 표현되기도 한다.
택소노미: 미리 정한 기준과 계층에 따라 개념이나 대상을 분류한 체계이다.
메타데이터: 자료의 제목·저자·주제·형식 등 자료를 설명하는 데이터이다.
온톨로지: 특정 영역의 개념과 개념 사이의 의미 관계를 형식적으로 표현한 지식 체계이다.
결정적 차이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태그의 집합'이라는 점이며, 이는 폭소노미의 핵심 특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택소노미는 사전에 정한 분류 기준과 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이용자가 자유롭게 붙인 태그의 집합을 가리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 '택소노미'는 '폭소노미'로 고쳐야 한다.
② O — 폭소노미는 소셜 태깅 과정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태그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분류 체계이며, 태그 빈도를 반영한 태그 클라우드로 시각화할 수 있다.
③ X — 메타데이터는 자료의 속성을 기술하는 데이터이지, 이용자 태그가 모여 형성된 분류 체계 자체가 아니다. 틀린 표현 '메타데이터'는 '폭소노미'로 고쳐야 한다.
④ X — 온톨로지는 개념과 그 의미 관계를 형식적으로 구조화한 지식 체계이므로 자유로운 소셜 태깅의 부산물을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온톨로지'는 '폭소노미'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태그가 자료를 설명한다는 이유로 ③ 메타데이터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태그의 기능이 아니라 이용자 태그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분류 체계 전체를 묻고 있으므로 폭소노미가 정답이다. 또한 빈도에 따라 태그를 시각화한 결과는 태그 클라우드라는 점도 함께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용자 참여·자유 태깅·태그의 집합'이 제시되면 폭소노미로 판단한다. '미리 정한 계층적 분류'는 택소노미, '자료를 설명하는 데이터'는 메타데이터, '개념 간 의미 관계의 형식화'는 온톨로지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폭소노미는 이용자가 만든 태그 분류, 택소노미는 미리 짠 계층 분류이다.

NoteBase

2. 오픈액세스(OA : Open Access)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골드 OA는 저자가 자신의 프리프린트 또는 포스트프린트를 리포지터리에 셀프 아카이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브론즈 OA는 출판사 웹사이트에서만 무료로 논문을 이용할 수 있고, 공유나 재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하이브리드 OA는 OA학술지가 수록된 모든 논문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④ 그린 OA는 구독 기반 학술지가 별도의 비용이 지불된 개별 학술논문에 대해 OA화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오픈액세스 유형을 논문의 공개 위치, 공개 방식, 재사용 허용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골드 OA: 학술지 자체가 논문을 오픈액세스로 출판하여 이용자가 출판사 플랫폼에서 공개 논문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린 OA: 저자가 프리프린트나 포스트프린트를 기관·주제 리포지터리 등에 셀프 아카이빙하는 방식이다.
브론즈 OA: 출판사 웹사이트에서 논문을 무료로 읽을 수 있지만 명시적인 오픈 라이선스가 없어 공유·재사용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이다.
하이브리드 OA: 구독형 학술지에서 별도의 비용이 지불된 일부 개별 논문만 오픈액세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골드 OA'가 틀린 표현이다. 저자가 프리프린트 또는 포스트프린트를 리포지터리에 셀프 아카이빙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은 그린 OA이다.
② O — 브론즈 OA는 출판사 웹사이트에서 논문을 무료로 읽을 수 있게 하지만 명시적인 오픈 라이선스가 없어 공유나 재사용을 허용한다고 볼 수 없는 유형이다.
③ X — '수록된 모든 논문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가 틀린 표현이다. 하이브리드 OA는 구독형 학술지의 모든 논문이 아니라 비용이 지불되어 OA로 전환된 일부 개별 논문만 무료로 공개한다. 학술지 전체 논문이 OA로 출판되는 것은 골드 OA의 전형적 형태이다.
④ X — '그린 OA'가 틀린 표현이다. 구독 기반 학술지에서 별도의 비용이 지불된 개별 논문을 OA로 전환하는 방식은 하이브리드 OA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그린 OA의 셀프 아카이빙을 골드 OA로, ④는 하이브리드 OA의 개별 논문 OA 전환을 그린 OA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③의 '모든 논문'은 일부 개별 논문만 공개되는 하이브리드 OA의 핵심과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포지터리 셀프 아카이빙이면 그린, 출판사 사이트에서 라이선스 없이 무료 열람만 가능하면 브론즈, 구독형 학술지의 일부 유료 전환 논문이면 하이브리드, 학술지 자체의 OA 출판이면 골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골드는 출판, 그린은 저장소, 브론즈는 무료 열람만, 하이브리드는 구독지 속 일부 OA이다.

NoteBase

3. 다음은 번기(Bunge)의 정보서비스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 중 괄호 안의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이용자의 요구 → 질문의 접수 → 질문의 명료화 → (㉠) → 탐색 전략 수립 → 탐색 실행 → (㉡) → 정보의 전달 → 적합성 판단

① ㉠ 질문의 번역, ㉡ 연관성 판단
② ㉠ 질문의 번역, ㉡ 결과 도출
③ ㉠ 정보요구 확인, ㉡ 연관성 판단
④ ㉠ 정보요구 확인, ㉡ 결과 도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Bunge의 정보서비스 과정에서 질문을 탐색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단계와 탐색 결과를 선별하는 단계의 위치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이용자의 요구 → 질문의 접수 → 질문의 명료화 → 질문의 번역 → 탐색 전략 수립 → 탐색 실행 → 연관성 판단 → 정보의 전달 → 적합성 판단

질문의 번역은 명료해진 질문을 탐색에 사용할 용어와 표현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므로 탐색 전략 수립보다 앞선다. 연관성 판단은 탐색으로 얻은 정보가 질문과 관련되는지를 가려 정보로 전달하기 위한 단계이므로 탐색 실행 뒤, 정보의 전달 앞에 놓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의 '질문의 번역'과 ㉡의 '연관성 판단'이 모두 과정의 위치에 맞는다. 질문을 탐색 가능한 형태로 번역한 뒤 탐색 전략을 세우고, 탐색 결과의 연관성을 판단한 뒤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② X — ㉠의 '질문의 번역'은 맞지만, ㉡의 '결과 도출'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에 '연관성 판단'이 들어간다. 탐색 실행 후에는 검색된 정보가 질문과 관련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③ X — ㉡의 '연관성 판단'은 맞지만, ㉠의 '정보요구 확인'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에 '질문의 번역'이 들어간다. 이용자의 요구는 앞 단계에서 접수·명료화되며, 그다음에는 명료해진 질문을 탐색에 쓸 표현으로 바꾼다.

④ X — ㉠의 '정보요구 확인'과 ㉡의 '결과 도출'이 모두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은 '질문의 번역', ㉡은 '연관성 판단'이다.

오답 포인트

'정보요구 확인'은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질문을 명료화하는 앞부분과 의미가 겹치므로 ㉠의 위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탐색 실행 직후에는 곧바로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된 정보의 연관성을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의 '적합성 판단'은 전달된 정보가 이용자의 실제 요구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이므로 '연관성 판단'과 구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형 문제에서는 각 단계의 산출물이 다음 단계의 입력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명료해진 질문은 번역되어 탐색 전략의 입력이 되고, 탐색 실행의 결과는 연관성 판단을 거쳐 전달되며, 전달 뒤에는 이용자 요구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명료화 뒤에는 번역, 탐색 뒤에는 연관성, 전달 뒤에는 적합성이다.

NoteBase

4.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 국가의 보존가치 확보를 위해 무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 수집 협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청구 및 판매용 자료의 보상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온라인 자료의 수집 =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여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정당한 보상 = 판매용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때 그 자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보상이다.

핵심 구분

「도서관법」 제22조는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도록 한다. 기술적 보호조치 등으로 수집이 제한되면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본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집 대상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이면 무상 수집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O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으로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O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그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X
판매용 온라인 자료는 무상 수집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의 대상이므로 옳지 않다.
틀린 표현: '판매용인 경우, 국가의 보존가치 확보를 위해 무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오답 포인트

국가의 보존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용 자료도 무상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④의 '무상으로 수집할 수 있다'이며, 조문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온라인 자료 수집 문항에서는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의 선정·수집·보존', '수집 제한 시 제공자에 대한 협조 요청', '본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청구', '판매용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차례로 대조한다. 특히 판매용 자료와 무상 수집을 연결한 표현은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온라인 자료는 보존가치를 따라 수집하고, 판매용이면 정당하게 보상한다.

NoteBase

5. 정보검색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불리언 모델은 검색어가 표현하는 개념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② 벡터공간 모델에서는 질의어의 일부만 수록한 문헌을 부분매칭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③ 벡터공간 모델은 문헌이 포함하고 있는 색인어 간에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상호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다.

④ 확률 모델에서 어떤 문헌이 특정 질의에 대해 적합 문헌으로 검색되기 위해서는 이 문헌의 적합 확률이 부적합 확률보다 높아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불리언 모델, 벡터공간 모델, 확률 모델이 질의와 문헌의 적합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불리언 모델은 AND·OR·NOT 등의 논리 연산으로 정확 일치 여부를 판정하는 집합 기반 모델이다. 고전적 불리언 모델은 검색어의 가중치나 문헌의 적합도 순위를 표현하기 어렵다.
벡터공간 모델은 질의와 문헌을 용어 가중치 벡터로 나타내고 두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하므로 부분일치와 순위화를 지원한다.
확률 모델은 주어진 질의에 대해 문헌이 적합할 확률을 추정하여 그 확률이 높은 순서로 검색 결과를 제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개념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고전적 불리언 모델은 검색어의 포함 여부와 논리식 충족 여부를 이분적으로 판단하므로 검색어별 상대적 중요도나 적합도의 정도를 표현하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불리언 모델은 검색어를 논리 연산자로 결합하여 정확 일치 여부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이다.
② O — 벡터공간 모델은 질의와 문헌의 유사도를 연속적인 값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어 일부만 포함한 문헌도 부분매칭으로 검색할 수 있다.
③ O — 실제 색인어 사이에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고전적 벡터공간 모델은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각 색인어 차원을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전제한다.
④ O — 확률 모델은 문헌의 질의 적합 확률을 추정하고, 적합할 확률이 부적합할 확률보다 높은 문헌을 적합 문헌으로 판단하거나 더 앞에 순위화한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 불리언 연산자가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상대적 중요도'까지 표현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틀린다. 논리적 결합은 AND·OR·NOT으로 조건을 정하는 것이고, 상대적 중요도는 가중치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모델별 판단 기준을 확인한다. 정확 일치와 논리 연산이면 불리언 모델, 가중치·유사도·부분일치이면 벡터공간 모델, 적합 확률과 확률 순위이면 확률 모델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불리언은 논리식과 정확 일치, 벡터공간은 가중치와 부분일치, 확률은 적합 확률이다.

NoteBase

6. 미국도서관협회(ALA) 윤리강령(2008년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용자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한다.
② 지적자유의 원칙을 옹호하고 모든 형태의 검열에 저항한다.
③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을 보호한다.
④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이용자의 권리보다 우선시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ALA 윤리강령의 핵심 원칙 가운데 이용자 서비스, 지적자유,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항이다.

핵심 개념

ALA 윤리강령은 도서관 전문직이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도록 제시한 윤리 원칙이다.
지적재산권 원칙의 핵심은 권리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이용자의 이익과 권리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옹호하는 데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모든 도서관 이용자에게 적절히 조직된 자료, 공평한 서비스와 접근, 정확하고 편견 없으며 정중한 응답을 통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
② O — 지적자유의 원칙을 옹호하고 도서관 자료에 대한 모든 검열 시도에 저항한다는 내용에 부합한다.
③ O — 이용자가 찾거나 받은 정보와 열람·대출·취득·전송한 자료에 관하여 프라이버시와 비밀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부합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이용자의 권리보다 우선시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정보이용자의 이익과 권리자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옹호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권리자를 이용자보다 우선한다'는 뜻으로 바꾼 선지이다. 존중은 일방적 우선이 아니며, ALA 윤리강령은 두 이해관계의 균형을 강조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LA 윤리강령 선지에서는 ‘공평한 서비스’, ‘지적자유와 검열 저항’, ‘프라이버시와 비밀 보호’,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균형’을 기준어로 확인한다. 어느 한쪽의 권리를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하면 균형 원칙에 어긋나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서비스는 공평하게, 검열에는 저항하고, 이용 비밀은 보호하며,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와 권리자의 균형으로 기억한다.

NoteBase

7. 정보검색 평가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F척도는 정확률과 재현율의 조화평균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

② 검색된 문헌 수가 증가할수록 적합문헌이 많이 검색되므로 재현율이 증가하는 반면, 검색된 문헌들 가운데 부적합문헌 또한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확률은 떨어지게 된다.

③ 누락률은 검색되지 않은 적합문헌의 비율로서 누락된 정보량을 암시하며 누락률과 정확률을 더하면 1이 된다.

④ 배제율은 전체 부적합문헌 가운데 검색되지 않은 문헌의 비율을 나타내며 부적합률과 배제율을 더한 값은 1이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보검색 평가척도인 정확률, 재현율, 누락률, 부적합률, 배제율과 F척도의 의미 및 서로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확률은 검색된 문헌 중 적합문헌의 비율이고, 재현율은 전체 적합문헌 중 검색된 적합문헌의 비율이다.
누락률은 전체 적합문헌 중 검색되지 않은 적합문헌의 비율이므로 재현율의 보수이다. 따라서 누락률과 재현율의 합은 1이다.
부적합률은 전체 부적합문헌 중 검색된 부적합문헌의 비율이고, 배제율은 전체 부적합문헌 중 검색되지 않은 부적합문헌의 비율이므로 두 값의 합은 1이다.
F척도는 정확률과 재현율을 함께 반영하는 조화평균 계열의 척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F척도는 정확률과 재현율을 조화평균 방식으로 결합하며, 가중치를 통해 두 척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O — 검색 범위를 넓혀 검색 문헌 수가 증가하면 적합문헌을 더 많이 찾아 재현율은 높아지는 반면, 부적합문헌도 함께 포함되어 정확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확률과 재현율 사이의 일반적인 상충관계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누락률과 정확률을 더하면 1'이다. 누락률은 전체 적합문헌 중 검색되지 않은 적합문헌의 비율이며, 올바르게는 '누락률과 재현율을 더하면 1'이다. 정확률은 분모가 검색된 전체 문헌이므로 누락률의 보수가 아니다.
④ O — 배제율은 전체 부적합문헌 가운데 검색되지 않은 문헌의 비율이다. 전체 부적합문헌을 검색된 것과 검색되지 않은 것으로 나누므로 부적합률과 배제율의 합은 1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누락률의 설명 자체는 맞게 제시한 뒤 보수 관계의 상대를 정확률로 바꾸었다. 적합문헌 전체를 분모로 쓰는 누락률의 짝은 같은 분모를 쓰는 재현율이며, 검색된 문헌 전체를 분모로 쓰는 정확률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척도의 분모를 확인한다. 전체 적합문헌을 분모로 하면 재현율과 누락률이 한 쌍이고, 전체 부적합문헌을 분모로 하면 부적합률과 배제율이 한 쌍이다. 각 쌍은 검색됨과 검색되지 않음으로 전체를 나누므로 합이 1이 된다.

암기 포인트

적합문헌의 보수 관계는 재현율＋누락률＝1, 부적합문헌의 보수 관계는 부적합률＋배제율＝1이다.

NoteBase

8. 진스(Zins)의 정보학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학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화모델 : 정보학은 문화 영역에서 구현된 데이터 / 정보 / 지식 / 의미현상의 모든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② 관계적 모델 : 정보학이 데이터 / 정보 / 지식 등의 관계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인지과학, 사회학, 교육학 등과 유사한 연구분야이다.

③ 포괄적 모델 : 정보학은 데이터 / 정보 / 지식 / 의미 현상의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므로 인지과학, 사회학, 교육학 등과 차별되는 고유한 연구분야라고 본다.

④ 기술모델 : 정보학은 모든 형태의 기술에서 구현되는 데이터 / 정보 / 지식 / 의미 현상의 관계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진스(Zins)의 정보학 모델이 정보학의 연구 범위를 어떤 관점에서 규정하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화모델: 문화 영역에 구현된 데이터·정보·지식·의미 현상의 모든 측면을 연구한다.
관계적 모델: 데이터·정보·지식 등의 관계를 탐구하며 인지과학·사회학·교육학 등과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포괄적 모델: 데이터·정보·지식·의미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탐구하는 고유한 연구 분야로 본다.
기술모델: 모든 형태의 기술에 구현된 데이터·정보·지식·의미 현상의 모든 측면을 연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문화모델은 문화 영역에 구현된 데이터·정보·지식·의미 현상을 폭넓게 연구하는 관점이므로 옳다.
② O — 관계적 모델은 데이터·정보·지식 등의 관계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인지과학·사회학·교육학 등과 유사한 연구 분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③ O — 포괄적 모델은 데이터·정보·지식·의미 현상의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탐구하며,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고유한 연구 분야로 정보학을 본다는 설명이 옳다.
④ X — 틀린 부분은 기술모델의 연구 범위를 '관계적 측면'으로 한정한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기술모델은 모든 형태의 기술에 구현된 데이터·정보·지식·의미 현상의 '모든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모든 형태의 기술'이라는 앞부분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뒤의 '관계적 측면'은 관계적 모델의 핵심 표현을 섞은 것이다. 기술모델에서는 기술에 구현된 정보 현상의 모든 측면을 연구 범위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모델명과 연구 범위를 연결해 판단한다. 문화모델은 문화에 구현된 현상, 관계적 모델은 요소 간 관계와 인접 학문과의 유사성, 포괄적 모델은 다양한 관점과 고유성, 기술모델은 기술에 구현된 현상의 모든 측면이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문화·기술은 '구현된 현상의 모든 측면', 관계는 '요소 간 관계', 포괄은 '다양한 관점과 고유성'이다.

NoteBase

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맞춤형 정보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주로 도서관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메뉴에 이용자들에게 관심영역을 등록하도록 한 후, 관심 주제 자료들이 도서관에 입수될 경우 자동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해당 자료의 서명, 목차 등의 서지정보가 통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① SDI
② Reader's Advisory Service
③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
④ Interlibrary Loan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용자의 관심 주제와 새로 입수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대조하여 맞춤형 정보를 알려 주는 정보서비스가 무엇인지 묻는다.

핵심 개념

SDI(선택적 정보배포)는 이용자별 관심 프로파일을 미리 등록하고, 새로 입수되는 정보 가운데 관심 분야와 일치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알려 주는 맞춤형 정보서비스이다.
Reader's Advisory Service는 이용자의 독서 흥미와 요구에 맞는 책이나 독서 방향을 추천·안내하는 서비스이다.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기관·전문가·서비스로 연결하는 서비스이다.
Interlibrary Loan은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서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이용자의 관심영역을 등록한 뒤 새로 입수된 자료와 대조하여 서명·목차 등의 서지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한다는 설명은 SDI의 핵심 절차와 일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Reader’s Advisory Service’이다. 이 서비스는 독서 취향과 요구에 맞는 책을 추천·안내하는 서비스이며, 제시문처럼 관심 프로파일과 신착 정보를 대조해 통보하는 것은 SDI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이다. 이 서비스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외부 기관·전문가·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며, 제시문의 올바른 명칭은 SDI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Interlibrary Loan’이다. 이는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빌려 제공하는 상호대차이며, 제시문의 맞춤형 정보 통보 서비스는 SDI이다.

오답 포인트

‘이용자에게 알맞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넓은 의미만 보면 ②나 ③도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제시문의 결정적 단서는 ‘관심영역 사전 등록’, ‘새로 입수된 자료와의 자동 대조’, ‘서지정보 통보’이며, 이 세 요소는 SDI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심 프로파일과 신착 정보를 계속 대조해 선별 통보하면 SDI, 독서자료를 추천하면 Reader’s Advisory Service, 적절한 정보원이나 기관으로 연결하면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빌리면 Interlibrary Loan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SDI는 ‘관심 등록 → 신착 정보 대조 → 선택 통보’이다.

NoteBase

10. TERMS 2.0(Techniques for 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에서 제시한 전자정보원 관리 6단계를 가장 적절한 순서로 배열한 것은?
① 조사 → 수서 → 구현 · 이용 → 평가 → 구독중단 · 대체 → 보존
② 수서 → 조사 → 평가 → 구현 · 이용 → 보존 → 구독중단
③ 조사 → 평가 → 수서 → 구현 · 이용 → 보존 → 구독중단
④ 수서 → 구현 · 이용 → 평가 → 조사 → 구독중단 → 보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TERMS 2.0이 제시한 전자정보원 관리의 6단계를 생애주기의 흐름에 맞게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1. 조사 — 새로운 전자정보원의 필요성, 내용, 이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2. 수서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을 선정하고 계약·구입한다.
3. 구현·이용 — 접근 환경을 설정하고 이용자가 실제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4. 평가 — 구현 후 축적된 이용 현황과 성과를 검토한다.
5. 구독중단·대체 — 평가 결과에 따라 구독을 유지할지, 중단하거나 다른 자원으로 바꿀지를 결정한다.
6. 보존 — 장기적인 접근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왜 이 순서인가: 조사 결과가 수서의 근거가 되고, 구현·이용 과정에서 나온 자료가 평가의 근거가 되며, 그 평가가 구독중단·대체 및 보존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조사 → 수서 → 구현·이용 → 평가 → 구독중단·대체 → 보존으로 TERMS 2.0의 6단계를 올바르게 배열하였다.

② X — 수서를 조사보다 먼저 둔 점과 보존을 구독중단보다 먼저 둔 점이 잘못되었다. 틀린 표현 '수서 → 조사' 및 '보존 → 구독중단'은 올바르게는 '조사 → 수서', '구독중단·대체 → 보존'이다. 전체 순서는 조사 → 수서 → 구현·이용 → 평가 → 구독중단·대체 → 보존이다.

③ X — 실제 이용 결과를 검토하는 평가를 수서와 구현·이용보다 먼저 둔 점이 잘못되었다. 틀린 표현 '조사 → 평가 → 수서'는 올바르게는 '조사 → 수서 → 구현·이용 → 평가'이다. 또한 보존은 구독중단·대체 뒤에 온다. 전체 순서는 조사 → 수서 → 구현·이용 → 평가 → 구독중단·대체 → 보존이다.

④ X — 수서를 조사보다 먼저 두고, 조사를 구현·이용과 평가 뒤에 둔 점이 잘못되었다. 틀린 표현 '수서 → 구현·이용 → 평가 → 조사'는 올바르게는 '조사 → 수서 → 구현·이용 → 평가'이다. 전체 순서는 조사 → 수서 → 구현·이용 → 평가 → 구독중단·대체 → 보존이다.

오답 포인트

평가를 수서 전의 사전 검토와 혼동하기 쉽다. 사전 검토는 '조사'이고, TERMS 2.0의 '평가'는 자원을 수서하여 구현·이용한 뒤 그 성과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구독중단·대체를 결정한 다음 보존과 지속 가능성을 다룬다는 선후관계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자정보원의 생애주기를 '도입 전 검토 → 도입 → 서비스 제공 → 이용 결과 검토 → 유지·중단 결정 → 장기 접근 확보'로 바꾸어 판단하면 조사 → 수서 → 구현·이용 → 평가 → 구독중단·대체 → 보존의 순서가 된다.

암기 포인트

조·수·구·평·중·보: 조사하고, 수서하고, 구현·이용한 뒤, 평가하여, 구독중단·대체를 결정하고, 보존한다.

NoteBase

11. 도서관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KOLIS-NET : 공동으로 구축하는 통합목록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장목록을 종합목록화하여 서지, 목록, 목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② 책나래 서비스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운영하는 장애인 대상 무료 우편서비스로 서비스 협력 체계가 공공도서관 중심이나 일부 대학도서관도 참여한다.

③ CLiC : 미국 콜로라도 지역 도서관 시스템으로 상호대차 및 문헌배달, 전문 교육 및 컨설팅, 협동구입 등을 수행하고 있다.

④ MHEC : 미국 대학교,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협력 네트워크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내외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의 명칭과 핵심 기능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특히 MHEC와 METRO처럼 약칭이 비슷한 기관을 구별해야 한다.

핵심 개념

KOLIS-NET: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국 도서관의 서지·소장 정보를 공동 구축하고 활용하는 국가자료종합목록 시스템이다.
책나래: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배달하는 우편서비스이다.
CLiC: 콜로라도 지역 도서관을 연결하여 자료 배송·상호대차, 교육, 컨설팅, 공동구매 등을 지원하는 협력 조직이다.
METRO: Metropolitan New York Library Council의 약칭으로, 뉴욕 대도시권의 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 등 문화기관의 협력과 자원 공유를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KOLIS-NET은 참여 도서관이 서지·소장 데이터를 공동 구축하여 전국 도서관 자료를 통합 검색하고 활용하게 하는 국가자료종합목록 시스템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O — 책나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는 장애인 대상 무료 우편서비스이며,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등 여러 유형의 도서관도 참여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O — CLiC는 Colorado Library Consortium으로, 콜로라도 지역 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 배송과 자원 공유, 직원 교육, 컨설팅, 공동구매·할인 지원 등을 제공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MHEC'이다. 대학교·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 협력 네트워크라는 설명에 해당하는 명칭은 MHEC가 아니라 METRO이다. 올바르게는 'METRO는 뉴욕 대도시권의 도서관·아카이브·박물관 등 문화기관의 협력과 자원 공유를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이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기관의 기능 설명이 그럴듯하지만 약칭 한 글자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MHEC'와 'METRO'를 같은 기관으로 보면 오답을 고르기 어렵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네트워크 문제에서는 약칭을 지역과 대표 기능에 연결한다. KOLIS-NET은 한국의 국가 종합목록, 책나래는 장애인 무료 우편서비스, CLiC는 콜로라도 도서관 협력, METRO는 뉴욕 대도시권 문화기관 협력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KOLIS-NET=국가 종합목록, 책나래=장애인 무료 우편, CLiC=콜로라도, METRO=뉴욕 문화기관 협력이다.

NoteBase

12. 정보서비스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서비스 과정에는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가치나 요소가 있어서 참고면담이나 탐색 과정에 대한 측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② 여러 방식으로 서비스 과정을 관찰하고, 이용자의 질문에 대하여 제시한 해답을 검토하는 질적인 평가방법은 비공개적 조사법이다.

③ 사전 통보식 시험 질문법은 대리 질문자가 미리 작성된 질문을 사서에게 전화 · 우편 · 방문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④ 가디너(Gadiner)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비밀 조사법이 질문 – 해답 정확성 평가에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보서비스 평가의 어려움과 공개적 조사법·비공개적 조사법의 차이, 시험 질문법의 명칭 및 관련 연구자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보서비스 평가는 해답의 정확성뿐 아니라 참고면담, 탐색 과정, 사서의 태도처럼 인간적·과정적 요소도 함께 다루므로 단순한 수치만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공개적 조사법은 평가 사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실제 서비스 과정을 관찰하고 이용자에게 제공된 해답 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비공개적 조사법인 비밀조사법은 사서가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게 한 채, 훈련된 대리이용자가 미리 준비된 질문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정보서비스에는 사서와 이용자의 상호작용, 참고면담, 탐색전략 등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따라서 특히 참고면담과 탐색 과정의 질을 객관적 수치로만 측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비공개적 조사법'이다. 서비스 과정을 여러 방식으로 관찰하고 이용자에게 제시된 해답을 질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은 공개적 조사법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이러한 질적 평가방법은 공개적 조사법이다'라고 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사전 통보식 시험 질문법'이다. 대리 질문자가 준비된 질문을 일반 이용자처럼 전화·우편·방문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평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비공개적 시험 질문법, 즉 비밀조사법이다. 올바르게는 '비공개적 시험 질문법은 대리 질문자가 미리 작성된 질문을 사서에게 제시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비밀조사법을 이용한 질문-해답 정확성 평가를 가디너의 주장으로 연결한 것이다. 이 내용은 메이어의 연구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올바르게는 '메이어는 비밀조사법을 이용하여 질문-해답의 정확성을 조사하였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방법의 실제 내용과 명칭을 엇갈리게 제시한다. '관찰·해답 검토'는 공개적 조사법이고, '대리이용자·미리 준비된 질문·평가 사실을 모름'은 비공개적 조사법이다. ④는 평가방법 자체가 아니라 연구자 귀속을 바꾼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서가 평가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서비스 과정을 관찰·검토하면 공개적 조사법, 사서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리이용자가 준비된 질문을 제시하면 비공개적 조사법으로 판단한다. 인간적 상호작용과 탐색 과정이 포함되면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공개는 관찰·검토, 비공개는 대리이용자·준비된 질문, 정확성 조사는 메이어이다.

NoteBase

13. 주요 참고정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EBSCO :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데이터베이스, 학술 E-Books, 해외 디지털 매거진,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검색 등 학술정보를 제공

② OAIster : OCLC에서 관리를 하는 온라인 서지 목록으로 해외 저널 및 논문 검색을 제공

③ Google Scholar : 구글 프로젝트 및 인터넷 아카이브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화된 콘텐츠와 도서관에서 직접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대규모로 공동 저장

④ PRISM :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연구 수행과정을 관리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주요 참고정보원의 운영 주체와 핵심 제공 기능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EBSCO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전자책·디지털 매거진·통합검색 등의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OAIster는 OCLC가 운영하는 공개 접근 디지털 자원의 종합목록으로, 여러 기관의 메타데이터를 모아 검색하게 한다.
Google Scholar는 학술논문, 학위논문, 학술서적 등 학술자료를 통합 검색하는 학술 검색 서비스이다.
PRISM은 정부의 정책연구 수행과정 및 연구결과를 관리·공개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EBSCO는 연구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학술 전자책, 디지털 매거진, 통합검색 등 다양한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O — OAIster는 OCLC가 관리하는 온라인 종합목록으로, 여러 기관이 제공한 디지털 학술자원의 메타데이터를 모아 검색할 수 있게 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Google Scholar가 구글 프로젝트 및 인터넷 아카이브의 디지털화를 통해 콘텐츠를 대규모로 공동 저장한다'는 표현이다. Google Scholar는 웹에 공개된 학술문헌을 검색하고 인용 정보를 연결하는 학술 검색 서비스이다. 대규모 도서 디지털화는 Google Books와 Internet Archive 등에 관련된 사업이므로, 올바르게는 'Google Scholar는 여러 분야와 유형의 학술문헌을 통합 검색하는 서비스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 PRISM은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연구 수행과정을 관리하고 연구결과를 공개·공유하는 시스템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Google'이라는 공통 명칭을 이용해 Google Scholar의 학술문헌 검색 기능과 Google Books 등의 도서 디지털화 사업을 섞어 놓았다. 검색 서비스인지, 원문을 직접 디지털화·구축하는 사업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정보원의 이름을 운영 주체와 대표 기능으로 연결한다. EBSCO는 상용 학술정보, OAIster는 OCLC의 공개 디지털 자원 종합목록, Google Scholar는 학술문헌 검색, PRISM은 정부 정책연구 관리·공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EBSCO는 학술정보, OAIster는 OCLC 종합목록, Scholar는 학술검색, PRISM은 정책연구이다.

NoteBase

14. 오하이오도서관협의회(Ohio Library Council)가 제시한 참고면담 시 활용되는 5W1H 질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Who 정보를 누구에게 사용하는가?
② What 무엇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가?
③ Which book 어떤 책을 이미 보았는가?
④ How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참고면담에서 활용하는 5W1H 질문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5W1H는 Who(누구), What(무엇), When(언제), Where(어디), Why(왜), How(어떻게)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구체화하는 질문 틀이다. Which(어느 것)는 이 여섯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Who는 정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즉 정보의 이용 대상이나 관련 인물을 확인하는 질문이므로 5W1H에 해당한다.
② O — What은 이용자가 어떤 주제나 내용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므로 5W1H에 해당한다.
③ X — ‘Which(어떤 책을 이미 보았는가)’의 Which는 5W1H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Which가 아니라 When, Where, Why 가운데 필요한 질문으로 표현해야 한다.
④ O — How는 찾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확인하는 질문이므로 5W1H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참고면담에서 실제로 물어볼 법한 내용이라서 5W1H 항목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질문의 유용성이 아니라 의문사 자체가 Who·What·When·Where·Why·How 중 하나인지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영어 의문사를 먼저 확인하고 Who·What·When·Where·Why·How의 여섯 단어와 대조한다. 이 목록에 없는 Which가 나오면 5W1H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5W1H는 Who·What·When·Where·Why·How이며, Which는 제외된다.

NoteBase

15. 카츠(Katz, 2001)가 제시한 2차 정보원의 유형과 예시의 연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용물(surrogation) – 서지·색인·초록
② 안내물(guidance) – 교과서·해설서
③ 요약물(compaction) – 비평서·안내서
④ 편집물(repacking) – 백과사전·핸드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카츠가 구분한 2차 정보원의 기능인 대용물, 안내물, 요약물, 편집물과 각각의 대표 예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용물(surrogation): 원정보를 직접 보지 않고도 그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도록 대신 표현한 정보원이다. 서지·색인·초록이 해당한다.
안내물(guidance):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원이나 문헌을 선택하고 찾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정보원이다. 문헌안내·서지안내 자료가 대표적이다.
요약물(compaction): 기존 문헌의 내용을 압축하고 분석·평가하여 제시한 정보원이다. 비평서·안내서가 해당한다.
편집물(repacking): 여러 원정보의 사실과 지식을 찾아보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한 정보원이다. 백과사전·핸드북이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서지·색인·초록은 원문을 대신하여 문헌의 존재, 소재, 주제나 핵심 내용을 알려 주므로 대용물의 예가 맞다.
② X — 틀린 부분은 '안내물ㅡ교과서·해설서'의 연결이다. 교과서·해설서는 안내물의 대표 예가 아니며, 올바르게는 이용자를 필요한 정보원으로 이끄는 문헌안내·서지안내 자료를 안내물의 예로 연결해야 한다.
③ O — 비평서·안내서는 기존 문헌의 핵심을 압축하면서 분석하거나 평가해 전달하므로 요약물의 예가 맞다.
④ O — 백과사전·핸드북은 여러 원정보의 지식과 사실을 항목별로 재구성하여 제공하므로 편집물의 예가 맞다.

오답 포인트

②의 '안내물'이라는 일상적 표현만 보고 설명을 제공하는 교과서·해설서를 곧바로 연결하기 쉽다. 여기서 안내는 학습 내용을 해설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용자를 적절한 정보원과 문헌으로 이끈다는 뜻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문을 대신해 소재·내용을 표시하면 대용물, 정보원 선택과 탐색 방향을 제시하면 안내물, 기존 문헌을 압축·평가하면 요약물, 여러 사실을 재구성해 바로 찾게 하면 편집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용은 서지·색인·초록, 안내는 문헌으로 가는 길, 요약은 비평·안내서, 편집은 백과사전·핸드북이다.

NoteBase

16. 다음 중 차세대 정보검색인 시맨틱웹(Semantic web)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빈칸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시맨틱웹은 문서의 의미정보와 문서 간 연관정보를 표현하는 (㉠)와/과 제약조건 그리고 로직을 표현하도록 확장된 언어인 (㉡)을/를 사용하여 표준용어를 정의하고, 용어 간 계층구조와 연관관계를 정하여 지식을 표현하는 기술이다.

① ㉠ HTML ㉡ CSS
② ㉠ XML ㉡ DTD
③ ㉠ RDF ㉡ Ontology
④ ㉠ RDFS ㉡ SPARQL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시맨틱웹에서 의미와 연관정보를 표현하는 RDF와, 개념·속성·관계·제약조건을 정의하는 Ontology의 역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는 자원에 관한 정보를 주어·서술어·목적어의 구조로 표현하여 자원 사이의 의미 관계를 기술하는 표준 모델이다.
Ontology는 특정 지식 영역의 개념, 속성, 계층관계, 연관관계 및 제약조건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지식 표현 체계이다.
HTML은 웹 문서의 구조를 작성하고, CSS는 그 문서의 표현 양식을 지정한다. XML은 사용자 정의 태그로 데이터를 구조화하며, DTD는 XML 문서의 허용 요소와 구조를 정의한다. RDFS는 RDF 어휘의 클래스·속성·계층 등을 정의하는 스키마 언어이고, SPARQL은 RDF 데이터를 검색하는 질의 언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HTML은 웹 문서의 구조를 작성하는 마크업 언어이고 CSS는 화면의 색상·글꼴·배치 등 표현 양식을 지정하므로 두 빈칸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틀린 대응은 'ㄱ HTML, ㄴ CSS'이며, 올바른 대응은 'ㄱ RDF, ㄴ Ontology'이다.
② X — XML은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표현하는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이고 DTD는 XML 문서가 따라야 할 요소와 구조를 선언하므로, 의미 관계 표현 모델과 지식 개념 체계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대응은 'ㄱ XML, ㄴ DTD'이며, 올바른 대응은 'ㄱ RDF, ㄴ Ontology'이다.
③ O — RDF는 자원의 의미정보와 자원 간 관계를 표현하고, Ontology는 표준 용어와 개념의 계층·연관관계 및 제약조건을 정의하므로 제시문의 설명에 정확히 부합한다.
④ X — RDFS는 RDF의 클래스·속성·계층을 정의하는 스키마 언어이고 SPARQL은 RDF 그래프를 검색·조작하는 질의 언어이므로 빈칸의 조합이 아니다. 특히 'ㄴ SPARQL'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ㄴ Ontology'이다. 전체 대응은 'ㄱ RDF, ㄴ Ontology'이다.

오답 포인트

RDFS도 클래스와 속성의 계층을 표현할 수 있어 Ontology와 혼동하기 쉽고, XML도 데이터를 구조화하므로 RDF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제시문의 '의미정보와 연관정보를 표현'은 RDF, '표준 용어·계층구조·연관관계·제약조건을 정의'는 Ontology를 가리킨다. SPARQL은 지식을 정의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미 표현된 RDF 데이터를 질의하는 언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원 간 의미 관계를 주어·서술어·목적어로 표현'하면 RDF, '개념·용어·속성·계층·제약을 정의'하면 Ontology, 'RDF 데이터를 검색'하면 SPARQL로 판단한다. 문서 구조는 HTML·XML, 화면 표현은 CSS, XML 문서 구조 규칙은 DTD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RDF는 관계를 표현하고, Ontology는 지식의 개념과 관계 체계를 정의하며, SPARQL은 RDF를 질의한다.

NoteBase

1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 정보검색 분야에 기초를 마련했으며 벡터공간모델, 용어가중치, 적합성 피드백, 클러스터링, 확장불리언 검색, 용어분리기, 사전구성, 용어의존성, 텍스트 이해와 구조화, SMART를 이용한 자동텍스트처리 등 정보검색 전반에 공헌하였다.

① Hans Peter Luhn
② Karen S. Jones
③ Gerard Salton
④ Calvin N. Mooers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보검색 발전에 기여한 학자와 그 학자의 대표 연구 성과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Hans Peter Luhn: 자동색인·자동초록과 KWIC 색인을 개척했으며, 문헌에서 자주 출현하는 용어의 중요성을 정보처리에 활용하였다.
Karen S. Jones: 역문헌빈도(IDF)와 용어 특이성 연구를 통해 검색어 가중치 산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Gerard Salton: SMART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고 벡터공간모델, 용어가중치, 적합성 피드백 등 현대 정보검색의 핵심 모형과 기법을 체계화하였다.
Calvin N. Mooers: '정보검색'이라는 용어를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기계적 정보검색과 Zatocoding 체계를 발전시켰다.

선지별 해설

① X — Hans Peter Luhn은 자동색인·자동초록과 KWIC 색인의 선구자이다. 제시문의 SMART, 벡터공간모델, 적합성 피드백을 함께 발전시킨 인물이라는 연결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Gerard Salton이다.
② X — Karen S. Jones는 역문헌빈도(IDF)와 용어 특이성 연구로 대표된다. 제시된 정보검색 전반의 업적을 모두 이 인물에게 연결한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Gerard Salton이다.
③ O — Gerard Salton은 SMART를 이용한 자동 텍스트 처리 연구를 이끌었고, 벡터공간모델·용어가중치·적합성 피드백·클러스터링 등 제시된 정보검색 기법의 발전에 폭넓게 기여하였다.
④ X — Calvin N. Mooers는 '정보검색'이라는 용어와 Zatocoding으로 대표된다. 제시문의 SMART와 벡터공간모델 등을 발전시킨 인물이라는 연결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Gerard Salton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네 사람 모두 정보검색 분야의 주요 인물이므로 분야명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용어가중치'만 보면 Luhn이나 Jones를 떠올릴 수 있지만, SMART와 벡터공간모델이 함께 제시되면 Salton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과 대표 표지를 먼저 연결한다. SMART·벡터공간모델은 Salton, KWIC·자동초록은 Luhn, IDF·용어특이성은 Jones, '정보검색' 용어·Zatocoding은 Mooers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SMART와 벡터공간모델은 Salton이다.

NoteBase

18. 봅과 스미스(Bopp & Smith)가 판본별로 제시한 참고정보서비스의 3대 기능 분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본별 참고정보서비스의 기능 분류
정보(Information)기능 – 참고질문에 대한 응답,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 교육(Instruction)기능 – 이용자 교육, 정보활용능력 교육,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등 안내(Guidance)기능 – 독자상담, 독서치료, 자원 추천 등

① 정보 · 교육 · 안내의 3대 기능 분류는 참고정보서비스의 기능적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분류체계이다.

② 정보기능은 직접적인 질문응답과 정보검색 ·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 정보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③ 교육기능은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을 포함한다.

④ 봅과 스미스는 제5판에서 기존 3대 기능 분류를 폐기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기능 분류 체계를 도입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봅과 스미스(Bopp & Smith)가 제시한 참고정보서비스의 정보·교육·안내 기능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와 기존 3대 기능 분류의 유지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정보(Information) 기능: 참고질문에 응답하고 정보검색과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키워드는 '질문 응답·정보 제공'이다.
교육(Instruction) 기능: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찾고 평가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교육, 정보활용능력 교육,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등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키워드는 '스스로 찾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안내(Guidance) 기능: 독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추어 독자상담, 독서치료, 적절한 자원 추천 등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키워드는 '상담·추천'이다.
세 기능은 정보는 직접 제공, 교육은 자립적 활용 능력 형성, 안내는 개인의 요구에 맞춘 상담과 추천으로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정보·교육·안내의 세 범주는 참고정보서비스가 수행하는 직접 정보 제공, 이용자 역량 형성, 상담·추천의 기능적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여 주는 분류체계이다.
② O — 정보 기능에는 참고질문에 대한 직접 응답뿐 아니라 정보검색과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③ O — 교육 기능은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도록 능력을 길러 주는 활동이다. 이용자 교육, 정보활용능력 교육,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이 이에 해당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제5판에서 기존 3대 기능 분류를 폐기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기능 분류체계를 도입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제5판에서도 정보·교육·안내라는 기존의 3대 기능 분류를 유지하여 참고정보서비스의 기능을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①~③은 표에 제시된 각 기능의 범위와 정확히 대응한다. ④는 '제5판'과 '새로운 체계'라는 표현 때문에 개정판에서 분류 자체가 바뀐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핵심 오류는 기존 3대 기능을 '폐기'했다는 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위의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사서가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찾아 주면 정보 기능, 이용자가 스스로 찾고 활용하도록 가르치면 교육 기능, 개인의 독서 요구에 맞추어 상담하거나 자료를 추천하면 안내 기능이다. 판·개정 관련 선지는 기능 명칭이나 사례의 변화와 분류체계 자체의 폐기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정보는 '찾아 제공', 교육은 '스스로 찾게 함', 안내는 '상담하고 추천'이다.

NoteBase

19. 정보의 간접서비스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독자상담서비스
② 정보중재
③ 상호대차와 원문서비스
④ 참고정보원의 개발과 구성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정보서비스를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여 제공하는 직접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원·도구를 개발하고 조직하는 간접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접서비스는 이용자의 질문이나 정보 요구에 직접 대응하여 상담·중재·자료 제공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간접서비스는 직접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참고정보원과 검색 도구 등을 개발·선정·조직하는 지원 기능이다.
판단 기준은 '이용자의 요구에 직접 응답하는가'와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원과 기반을 구축하는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독자상담서비스는 이용자와 상담하며 독서 요구에 맞는 자료를 안내하는 직접서비스이다. 틀린 표현은 간접서비스의 기능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직접서비스의 기능이다.
② X — 정보중재는 사서가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보원과 연결하는 직접서비스이다. 틀린 표현은 간접서비스의 기능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직접서비스의 기능이다.
③ X — 상호대차와 원문서비스는 이용자가 요구한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원문 형태로 제공하는 직접적인 자료 제공 서비스이다. 틀린 표현은 간접서비스의 기능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직접서비스의 기능이다.
④ O — 참고정보원을 개발하고 구성하는 일은 이용자의 개별 질문에 바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원과 탐색 기반을 마련하는 간접서비스의 기능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상호대차는 다른 기관을 거쳐 처리되므로 '간접'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직접·간접의 구분은 다른 기관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이용자의 구체적인 자료 요구에 직접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담·질의응답·정보중재·자료 제공처럼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응답하면 직접서비스로, 참고정보원·서지·검색도구의 개발과 조직처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면 간접서비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용자 요구에 응답하면 직접, 정보원과 도구를 구축하면 간접이다.

NoteBase

20.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specific – to – general)의 탐색 전략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인 인용 1건을 출발점으로 인용·피인용 관계를 따라 확장한다.

② 한 편의 핵심 논문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점차 넓은 주제로 검색을 확장한다.

③ 특정 저자의 한 저작에서 출발해 동일 저자의 다른 저작·관련 저자로 확장한다.

④ 시소러스의 통제어휘에서 상위어로부터 하위어로 단계적으로 좁혀 탐색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구체적인 문헌·저자·키워드 같은 출발점에서 인용 관계나 관련 개념을 따라 탐색 범위를 넓히는 specific-to-general 전략의 사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pecific-to-general 탐색은 이미 알고 있는 구체적인 문헌, 저자, 키워드 등의 단서에서 출발하여 관련 문헌이나 더 넓은 주제로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general-to-specific 탐색은 넓은 주제나 상위 개념에서 출발하여 하위 개념과 세부 주제로 범위를 좁히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구체적인 인용 문헌 1건에서 출발하여 그 문헌의 인용·피인용 관계를 따라 관련 문헌으로 범위를 넓히므로 specific-to-general의 사례이다.

② O — 한 편의 핵심 논문이라는 구체적 자료에서 키워드를 뽑아 더 넓은 주제로 검색을 확장하므로 specific-to-general의 사례이다.

③ O — 특정 저자의 한 저작에서 시작하여 같은 저자의 다른 저작과 관련 저자의 저작으로 탐색 대상을 확대하므로 specific-to-general의 사례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상위어로부터 하위어로 단계적으로 좁혀'이다. 이는 넓은 개념에서 세부 개념으로 좁혀 가는 general-to-specific 탐색이다. specific-to-general의 사례가 되려면 시소러스의 하위어·구체어에서 출발하여 상위어·일반어 쪽으로 탐색 범위를 넓힌다고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도 시소러스를 이용해 탐색한다는 점 때문에 확장 전략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탐색 도구가 아니라 이동 방향을 보아야 하며, '상위어에서 하위어로 좁힌다'는 표현은 specific-to-general과 정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출발점과 이동 방향을 확인한다. 문헌 1건·특정 저자·구체 키워드에서 관련 문헌이나 넓은 주제로 퍼지면 specific-to-general이고, 상위 주제에서 하위 주제로 좁아지면 general-to-specific이다.

암기 포인트

specific-to-general은 '한 점에서 바깥으로 확장', general-to-specific은 '큰 범위에서 세부로 축소'이다.

NoteBase

21. 색인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통제언어색인은 통제어휘 도구로부터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서 색인어로 채택하기 때문에 용어추출색인이라고 부른다.

② 자연어색인 시스템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동의어를 모두 탐색어로 사용하지 않으면 적합한 문헌을 전부 검색할 수 없게 된다.

③ 주제색인 작업은 문헌의 외적 속성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것이어서 비교적 단순하고 이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④ 전조합색인은 문헌의 내용을 여러 개의 단위 개념으로 색인하고 탐색할 때 각 단위 개념을 조합하여 적합한 문헌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색인법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통제언어색인과 자연어색인의 차이, 주제색인의 성격, 전조합색인과 후조합색인의 결합 시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제언어색인은 시소러스 등 통제어휘 도구에서 정해진 색인어를 골라 문헌에 부여하는 방식이며, 동의어와 표현의 차이를 통제한다.
자연어색인은 문헌에 실제로 쓰인 자연어를 색인어로 사용하므로 표현은 풍부하지만 동의어가 서로 다른 색인어로 흩어져 검색 누락이 생길 수 있다.
주제색인은 문헌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분석하여 주제를 표현하는 지적 작업이다.
전조합색인은 여러 개념을 색인 단계에서 미리 결합하고, 후조합색인은 개별 개념을 따로 색인한 뒤 검색 단계에서 결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통제언어색인이 시소러스와 같은 통제어휘 도구에서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여 부여한다는 설명 자체는 맞지만, 이를 '용어추출색인'이라고 부른 부분이 틀렸다. 용어추출색인은 문헌에 실제로 나타난 용어를 뽑는 방식이다. 올바르게는 통제어휘에서 정해진 용어를 선택해 문헌에 부여하므로 '부여색인'이라고 한다.

② O
자연어색인에서는 동일한 개념이 여러 동의어로 표현될 수 있다. 동의어 통제가 없으므로 관련 동의어를 탐색어에 함께 포함하지 않으면 다른 표현으로 색인된 적합 문헌을 빠뜨릴 수 있다.

③ X
'문헌의 외적 속성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하며 비교적 단순하고 노력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주제색인은 저자명·서명 같은 외적 속성을 기술하는 작업이 아니라 문헌의 내용을 분석해 주제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지적 작업이므로 상당한 판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④ X
'각 단위 개념을 색인하고 탐색할 때 조합한다'는 설명은 전조합색인이 아니라 후조합색인이다. 올바르게는 전조합색인은 색인 단계에서 단위 개념들을 미리 조합하여 복합 주제를 표현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통제어휘 도구에서 용어를 '선택'한다는 말 때문에 용어추출색인으로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 추출은 문헌 속 용어를 뽑는 것이고, 통제어를 골라 붙이는 것은 부여이다. ④는 개념의 결합 여부가 아니라 결합 시점을 묻는다. 검색할 때 결합하면 후조합색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어의 출처와 개념의 결합 시점을 확인한다. 문헌에서 말을 뽑으면 추출, 통제어휘에서 골라 붙이면 부여이다. 색인할 때 미리 결합하면 전조합, 검색할 때 결합하면 후조합이다. 자연어색인은 동의어로 인한 검색 누락 가능성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문헌에서 뽑으면 추출, 통제어를 붙이면 부여, 미리 묶으면 전조합, 나중에 묶으면 후조합이다.

NoteBase

2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보서비스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참고자료 및 정보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네트워크는 물론 세계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 - 각 도서관 정보전문가의 전문성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면담이 심화되기 어렵고, 여러 기관을 거쳐 해답을 얻는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될 수 있다.

①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서비스
② 채팅정보서비스
③ 협력형 디지털정보서비스
④ 가상참고서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여러 도서관이 네트워크를 통해 참고자료와 정보전문가를 공동 활용하고 질문을 서로 의뢰하는 정보서비스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협력형 디지털정보서비스는 둘 이상의 도서관이나 정보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질문을 분담하고 자료와 정보전문가의 전문성을 공동 활용하는 서비스이다. 한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을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 있어 자원과 전문성의 범위는 넓어지지만, 기관 간 전달 과정 때문에 답변이 지연될 수 있다.
화상회의시스템 정보서비스는 영상과 음성을 통한 실시간 상담, 채팅정보서비스는 문자 기반의 실시간 상담, 가상참고서가는 선별·조직한 온라인 참고정보원의 이용에 초점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서비스'이다. 화상회의는 영상·음성으로 사서와 이용자가 실시간 면담하는 전달 방식이므로, 여러 기관의 자료와 전문가를 연계하고 질문을 기관 간에 의뢰하는 제시문의 핵심과 다르다. 올바르게는 '협력형 디지털정보서비스'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채팅정보서비스'이다. 채팅정보서비스는 사서와 이용자가 문자로 즉시 대화하는 실시간 서비스이므로 면담을 심화하기 쉽고, 여러 기관을 거쳐 답변이 늦어지는 것이 본질적 특징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협력형 디지털정보서비스'이다.
③ O — 협력형 디지털정보서비스는 도서관들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료와 정보전문가를 공동 활용하고, 질문을 적합한 기관으로 이관하여 답변한다. 제시된 세 가지 특징에 모두 부합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가상참고서가'이다. 가상참고서가는 온라인 참고정보원을 선별·조직하여 이용자가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여러 기관의 전문가가 질문을 분담하는 서비스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협력형 디지털정보서비스'이다.

오답 포인트

'디지털'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①·②·④를 고르면 안 된다. 제시문의 결정적 단서는 '국내·세계적 정보 네트워크', '각 도서관 정보전문가의 전문성 활용', '여러 기관을 거쳐 답변'이다. 이는 특정 통신수단이나 온라인 자료 모음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을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문이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으로 이관되고 여러 기관의 자료·인력이 공동 활용되면 협력형 디지털정보서비스로 판단한다. 영상·음성의 실시간 상담은 화상회의, 문자의 실시간 상담은 채팅, 선별된 온라인 정보원의 제공은 가상참고서가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기관 간 질문 이관 + 자료·전문가 공동 활용 = 협력형 디지털정보서비스이다.

NoteBase

23. 다음 참고서비스의 제공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다양한 능력의 직원이 수준이 다른 질문에 답변하는 모형으로, 직원은 자신이 받은 훈련에 가장 잘 맞는 질문을 답변한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고도의 능력을 가진 직원을 일상적 질문에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① 이동 참고서비스
② 참고데스크 서비스
③ 계층적 참고서비스
④ 예약 참고서비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참고질문의 수준과 직원의 능력·훈련 수준을 대응시키는 서비스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계층적 참고서비스: 질문을 난이도나 전문성에 따라 구분하고, 각 수준에 적합한 능력과 훈련을 갖춘 직원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질문 수준별 분담'과 '직원 전문성의 효율적 활용'이다.
이동 참고서비스는 직원이 고정된 데스크를 벗어나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이고, 참고데스크 서비스는 정해진 창구에서 질문을 접수·응답하는 방식이며, 예약 참고서비스는 이용자와 상담 시간을 미리 정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이동 참고서비스는 직원이 자료실 등을 돌아다니며 이용자에게 능동적으로 접근하여 현장에서 질문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의 '직원의 훈련 수준에 맞춘 질문 분담'을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이동 참고서비스'는 '계층적 참고서비스'로 고쳐야 한다.
② X — 참고데스크 서비스는 정해진 참고봉사 창구에서 이용자의 질문을 접수하고 답변하는 방식이다. 질문의 수준에 따라 직원의 능력을 차등 배치하는 제시문의 모형과 다르다. 틀린 표현인 '참고데스크 서비스'는 '계층적 참고서비스'로 고쳐야 한다.
③ O — 계층적 참고서비스는 질문을 수준별로 나누어 각 직원이 자신의 능력과 훈련에 가장 알맞은 질문을 담당하게 한다. 고도의 능력을 가진 직원을 일상적 질문에 낭비하지 않는다는 제시문의 장점도 이 방식의 인력 배치 원리와 일치한다.
④ X — 예약 참고서비스는 심층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와 상담 일시를 미리 정하여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시문에는 사전 예약이 아니라 질문 수준과 직원 역량의 대응이 나타난다. 틀린 표현인 '예약 참고서비스'는 '계층적 참고서비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직원이 질문에 답한다'는 공통점만 보고 참고데스크 서비스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실제 구별 단서는 서비스 장소가 아니라 질문의 수준에 따라 담당 직원을 달리하고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문 난이도와 직원의 능력·훈련 수준을 연결하면 계층적 참고서비스, 직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다가가면 이동 참고서비스, 고정 창구에서 응답하면 참고데스크 서비스, 상담 시간을 미리 정하면 예약 참고서비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준별 질문에 수준별 직원을 배치하는 방식이 계층적 참고서비스이다.

NoteBase

24. 시소러스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등가관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들의 관계이며, 등가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로는 USE, UF를 사용한다.

② 계층관계는 상위에 오는 용어와 이에 종속되는 용어들 간의 관계를 말하며 관계기호로는 상위어인 NT, 하위어인 BT가 사용된다.

③ 등가관계 USE는 비디스크립터를 알려주고, UF는 비디스크립터를 해당 디스크립터로 안내한다.

④ 연관관계는 등가관계나 계층관계에 있으면서 개념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관계를 의미하며 관계기호로는 RT를 사용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시소러스의 등가관계·계층관계·연관관계를 구별하고 USE, UF, BT, NT, RT의 의미와 방향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등가관계: 동의어나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 가운데 우선어와 비우선어를 연결하는 관계이다.
비우선어에서는 우선어를 USE로 지시하고, 우선어에서는 비우선어를 UF로 제시한다.
계층관계: 개념의 상위어와 하위어를 연결하는 관계이다. BT는 상위어, NT는 하위어를 뜻한다.
연관관계: 등가관계나 계층관계는 아니지만 개념상 밀접하게 관련된 용어를 연결하는 관계이며 RT를 사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등가관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 사이의 관계이며, 이를 표시할 때 USE와 UF를 사용한다.
② X — '상위어인 NT, 하위어인 BT'가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상위어에 BT(Broader Term), 하위어에 NT(Narrower Term)를 사용한다.
③ X — USE와 UF의 안내 방향이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비우선어인 비디스크립터에서 USE가 사용할 우선어인 디스크립터를 안내하고, 디스크립터에서 UF가 그 디스크립터 대신 사용되지 않는 비디스크립터를 제시한다.
④ X — '등가관계나 계층관계에 있으면서'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등가관계나 계층관계에 있지 않지만 개념적으로 연관된 용어 사이가 연관관계이며, RT를 사용한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관계기호 자체는 모두 맞게 제시하고 그 방향만 바꾸어 놓았다. ④도 RT라는 기호는 맞지만 연관관계를 등가·계층관계 안의 관계처럼 서술한 부분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관계의 성격을 확인한 뒤 기호의 방향을 대응한다. 동의·유사 관계는 USE/UF, 위아래 관계는 BT/NT, 두 관계 밖의 개념적 관련은 RT이다. USE는 비우선어에서 우선어로, UF는 우선어에서 비우선어로 이어진다.

암기 포인트

USE는 사용할 우선어, UF는 우선어가 대신하는 비우선어, BT는 큰 범위의 상위어, NT는 좁은 범위의 하위어, RT는 관련어이다.

NoteBase

25. 다음은 클러스터링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빈칸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클러스터링에서 각 관찰치가 유사한지 그렇지 않은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유사도 계수 중에서 (㉠)는 비교하고자 하는 두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속성 간의 일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는 비교하고자 하는 두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분류속성들의 벡터 쌍에 대한 독립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① ㉠ 거리계수 ㉡ 상관계수
② ㉠ 연관계수 ㉡ 상관계수
③ ㉠ 거리계수 ㉡ 확률계수
④ ㉠ 연관계수 ㉡ 확률계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클러스터링에서 관찰치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계수 중 연관계수와 상관계수의 측정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관계수: 두 대상을 표현하는 속성들이 서로 일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계수이다. 키워드는 속성의 일치이다.
상관계수: 두 대상을 나타내는 분류속성 벡터 쌍의 독립성 또는 상관 정도를 측정하는 계수이다. 키워드는 벡터 쌍의 독립성이다.
거리계수는 두 관찰치 사이의 거리, 즉 비유사성을 나타내며, 확률계수는 제시된 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의 상관계수는 맞지만, ㄱ의 '거리계수'가 틀렸다. 속성 간 일치 정도를 측정하는 ㄱ은 연관계수이다. 따라서 'ㄱ 연관계수, ㄴ 상관계수'로 고쳐야 한다.
② O — 속성 간 일치 정도를 측정하는 ㄱ은 연관계수이고, 분류속성 벡터 쌍의 독립성을 측정하는 ㄴ은 상관계수이다. 두 빈칸이 모두 정의와 일치한다.
③ X — ㄱ의 '거리계수'와 ㄴ의 '확률계수'가 모두 틀렸다. 거리계수는 관찰치 사이의 비유사성을 거리로 나타내는 계수이며, 제시된 벡터 쌍의 독립성은 확률계수가 아니라 상관계수로 측정한다. 따라서 'ㄱ 연관계수, ㄴ 상관계수'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ㄱ의 연관계수는 맞지만, ㄴ의 '확률계수'가 틀렸다. 분류속성 벡터 쌍의 독립성을 측정하는 ㄴ은 상관계수이다. 따라서 'ㄱ 연관계수, ㄴ 상관계수'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유사성을 측정한다'는 서두만 보고 거리계수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빈칸은 각 계수의 구체적인 측정 대상을 묻는다. ㄱ의 '속성 간 일치'와 ㄴ의 '벡터 쌍의 독립성'이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의에서 측정 대상을 먼저 찾는다. 속성의 일치 정도이면 연관계수, 분류속성 벡터 쌍의 독립성 또는 상관 정도이면 상관계수, 관찰치 사이의 비유사적 간격이면 거리계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속성 일치는 연관, 벡터 쌍의 독립성은 상관, 떨어진 정도는 거리이다.

NoteBase